

여대생의 대인불안과 대인관계

정경숙, 오은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Kyeong-Sook Jeong, Eun-Ju Oh*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대인불안과 대인관계정도를 파악하고 여대생의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여대생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와 K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재학 중인 여학생 231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3일부터 동년 9월 17일 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정도는 중상정도이며, 대인불안정도는 중간이상의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학과만족도, 지각한 경제상태, 친구 수, 이성교제, 최근 경험한 정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불안과 친구 수로 확인되었으며, 총 30.1%를 설명하였다(Adj. R²=.301, p<.001). 따라서 여대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규명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여대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anxiety in fema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appropriate intervention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31 female college students in B and K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gathered between September 3rd, 2014 and September 17th of the same year, and analyzed by a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articipant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major, perceived economic level, number of friends, boyfriend, and recently experienced emo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s was explained by 30.1%. Therefore, the collected data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establishing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help female college students lower their social interpersonal anxiety and improve their ability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word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Female students

1. 서론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시기로 대인관계에서 친밀성을 획득하며,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1].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Eun-ju Oh (Changshin Univ.)

Tel: +82-55-250-3173 email: eunju218@cs.ac.kr

Received November 3, 2016

Revised (1st November 29, 2016, 2nd December 29,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최근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사회활동증가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미래직업을 설계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

특히 올바른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 형성은 졸업 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준비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복합적인 과정이며, 만족감, 민감성, 개방성, 친근감, 의사소통, 민감성, 개방성, 친근감, 의사소통, 이해성, 신뢰감등의 하위요인을 가지며, 서로를 알기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먼저 개방하고,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지, 촉진하게 된다[1].

대학생 시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나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심리적 적응문제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대인관계이다[3].

특히 최근에 발달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이 개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대학생활에서 면대면의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4] 디지털 문화 발달로 생긴 가상공간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인격적 유대를 갖는 공동체가 상실되고 있다[5]. 특히 여대생의 경우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외모에 치중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6] 여대생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아 불안수준을 높임으로써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7]. 또한 최근에 심각해지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여성이 남성보다 의존도가 높아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되고 있다[8-9].

대학생에게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는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나 불만족스러운 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우울증, 자폐증, 약물 의존 같은 정신적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3]. 또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자기 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낮춤으로써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4.11].

대학생의 높은 대인관계능력은 무엇보다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공감능력과 연결이 되고 자존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13]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대인불안이란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란(DSM-IV)에서 “낮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대인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를 가진 자신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의심될 때 경험하게 되며,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와 부정적인 자기진술을 하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더 부정적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기상이 긍정적이지 못한 문제를 야기한다[2.14].

대학생의 대인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관련이 있고, 낮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을 가지며[16], 여대생에게서 대인불안이 낮은 집단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이 높고, 자기신체상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2] 대인불안 성향이 강할수록 불안정애착 두려움유형, 관계중독적인 성향이 강하고[15] 여대생의 대인불안이 높을수록 거식이나 폭식 등의 이상식사행동과 관련이 있었다[18].

대학생시기에 형성된 대인관계는 이후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4] 현 시점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인불안을 낮추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대인불안이 자기효능감, 신체상과의 관계 [2] 대인관계 유형, 낭만적 애착유형, 관계중독과의 관계[15] 애착, 스트레스 대처방식, 식사행동에 관한 연구[18]와 여대생의 대인관계, 외모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우울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17]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여대생의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대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구체적 중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여대생들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여대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여대생들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여대생들의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의 수준을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B시와 K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240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program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을 .80, 효과크기.25 계산하였을 때 최소 200명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 9부를 제외한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절차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자가 보고식 설문 맨 앞에 첨부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개별화된 번호만 부여하여 보관파일에

저장하였다.

2.4 연구도구

1)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도구는 Schlein과 Guerney[18]가 개발한 ‘인간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문선모[19]가 번안한 대인관계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이며,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성, 친근성,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 등의 7가지 하위영역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2) 대인불안

대인불안 측정도구는 Leary[20]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 IAS)를 김남재[21]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이는 Likert 5점 척도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문항(3.6.10.15)은 역 채점 하였고, 측정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은 최소, 최대값, 평균, 평균 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9세였고, 학년은 2학년이 38.1%, 1학년 31.6%이었다. 종교는 55.0%가 없으므로 응답하였고, 학과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다. 학과의 선택 동기는 본인의사가 67.1%였으며, 취직이 잘 돼서가 18.6%를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은 77.1%가 중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82.7%로 가장 많았다. 친구 수에서 72.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많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20.8%를 차지하였다. 이성교제는 65.4%가 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최근 경험한 정서로는 경험 한 적 없는 경우가 42%로 가장 높았고, 우울18.2%, 외로움 15.2% 불안 12.6%, 분노 12.1%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y	N	%	M±SD
Grade	Freshmen	73	31.6	
	Sophomore	88	38.1	
	Junior	53	22.9	
	Senior	17	7.4	
Age(year)	20	77	33.3	
	21	76	32.9	21.398±1.619
	22	36	15.6	20-30
	23	19	8.2	
	>24	23	10.0	
Religion	Catholic	13	5.6	
	Buddhism	29	12.6	
	Christian	61	26.4	
	No	128	55.4	
Major Satisfaction	Very good	5	2.2	
	good	64	27.7	
	Moderate	115	48.9	
	Dissatisfaction	38	16.5	
	Very Dissatisfaction	9	3.9	
Majoring Motives	Because the job well	43	18.6	
	Of one's own motive	155	67.1	
	Parent's recommendation	33	14.3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12	5.2	
	Moderate	178	77.1	
	Low	41	17.7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191	82.7	
	Without family	19	8.2	
	Alone	21	9.1	

Variables	Category	N	%	M±SD
Number of Friend	Few	15	6.5	
	Moderate	168	72.7	
	Many	48	20.8	
Boy friend	Have	80	34.6	
	None	151	65.4	
Recently Experience emotion	Depression	42	18.2	
	Anxiety	29	12.6	
	Anger	28	12.1	
	Loneliness	35	15.2	
	None	97	42.0	

3.2 대상자의 대인관계, 대인불안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정도는 5점 만점에 3.42점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이해성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감성 3.56점, 친근감 3.49점, 만족감 3.46점, 의사소통 3.43점, 신뢰감 3.3.점 순이었고, 개방성 3.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불안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N=231)

Variables	Number	M±SD
Interpersonal Anxiety	15	2.62±0.49
Interpersonal Relations	25	3.42±0.50
Satisfaction	4	3.46±0.60
Communication	4	3.43±0.65
Trust	3	3.30±0.68
Friendliness	3	3.49±0.66
Sensitiveness	2	3.56±0.80
Openness	5	3.24±0.62
Understanding	4	3.59±0.6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학과만족도 ($F=9.83, p<.001$), 지각한 경제상태($F=4.17, p<.001$), 친구 수($F=6.92, p<.001$), 이성 친구($F=-2.12, p=.034$), 최근 경험한 정서($F=4.9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는 ‘불만족’이나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 집단이, 지각한 경제상태은 ‘낮다’, ‘보통’ 집단보다 ‘높다’ 집단이, 친구의 수에서는 ‘적다’ 집단보다는 ‘보통’ 집단이, ‘보통’ 집단보다는 ‘많

다'는 집단의 대인관계가 더 좋았다. 최근 경험한 정서가 '없다'는 집단이 그 외 다른 집단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y	Interpersonal Relations	
		M±SD	t or F(p) Scheffé's
Grade	Freshmen ^a	3.40±0.53	0.75(.523)
	Sophomore ^b	3.48±0.45	
	Junior ^c	3.35±0.52	
	Senior ^d	3.42±0.50	
Age(year)	20	3.41±0.54	0.86(.487)
	21	3.44±0.43	
	22	3.51±0.48	
	23	3.39±0.47	
	>24	3.27±0.58	
Religion	Catholic ^a	3.56±0.47	2.61(.052)
	Buddhism ^b	3.32±0.51	
	Christian ^c	3.55±0.48	
	Nod ^d	3.37±0.50	
Major Satisfaction	Good ^a	3.58±0.50	9.83(<.001) a,b<c
	Moderate ^b	3.42±0.45	
	Dissatisfaction ^c	3.18±0.56	
Majoring Motives	Because the job well	3.40±0.62	0.10(.906)
	Of one's own motive	3.42±0.43	
	Parent's recommendation	3.45±0.61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a	3.62±0.40	4.17(.017) b,c<a
	Moderate ^b	3.45±0.49	
	Low ^c	3.24±0.51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3.43±0.48	0.30(.735)
	Without family	3.34±0.50	
	Alone	3.43±0.68	
Number of Friend	Few ^a	2.95±0.46	18.07(<.001) a<b<c
	Moderate ^b	3.38±0.44	
	Many ^c	3.72±0.54	
Boy friend	Have	3.52±0.44	-2.12(.034)
	None	3.37±0.52	
Recently Experience emotion	Depression ^a	3.31±0.43	4.97(.001) a,b,c,d<e
	Anxiety ^b	3.29±0.59	
	Anger ^c	3.44±0.47	
	Loneliness ^d	3.23±0.51	
	None ^e	3.57±0.46	

3.4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의 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98, p<.001$),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terpersonal Relations
	r(p)
Social Interaction Anxiety	-.498(<.001)

3.5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전공 만족도, 지각한 경제상태, 친구 수, 최근 경험한 정서를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6으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인불안($p<.001$), 친구 수($p<.001$)가 여대생의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962, p<.001$)[Table 5].

Table 5. The Influence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	β	t	p	Adj. R2	F(p)
(constant)		31.193	<.001	.301	12.962 (<.001)
Interpersonal Anxiety	-.432	-7.539	<.001		
No. Friends [†]	-.223	-3.600	<.001		

[†]: dummy variable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대인불안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

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으로 나타나 중간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에서 3.49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에서[15]결과인 3.69점보다는 낮은 결과로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대학생활 중 필수교과의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대상자와 대인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나[4, 11-12] 여대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하여 이후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활에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낮추고[4] 로를 모색해야할 대학시기의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고[11] 대인관계를 잘할수록 자존감과 자아탄력성 공감능력이 향상됨을 고려할 때[12-13]요인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대인관계의 하위영역별로는 이해성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감성 3.56점, 친근감 3.49점, 만족감 3.46점, 의사소통 3.43점, 신뢰감 3.3 점 순이었고, 개방성 3.24점 순이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이해성은 자신 및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민감성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비롯하여 타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가장 낮게 나타난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본인이 이야기 하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으로 이는 장희정, 박윤경[7]의 연구에서 개방성, 의사소통, 이해성, 만족감, 친근감, 자신감, 민감성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개방성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개방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기 개방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알리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을 상대방에게 개방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노출해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1] 최근 신조어로 생기고 있는 ‘혼밥’, ‘혼술’ 등의 용어들이 사회를 반영하듯 고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불안 정도는 평균평점 2.62점(5점 만점)이었으며 평균 75점 만점에 39.35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17]의 연구에서 나타난

36.87점보다는 높았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16] 40.00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여대생의 대인불안 점수가 중간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의 높은 대인불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과 만족도, 지각한 경제상태, 친구 수, 이성교제, 최근 경험한 정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에 매우만족하고, 지각한 경제상태가 높고, 친구수가 많고, 이성친구가 있으면서, 최근 특별히 경험한 정서가 없는 경우 대인관계가 높았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4]용돈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구 수가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채[13]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좋고 대학생활 및 전공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동일한 대상자를 통한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 있는 변수에 대한 규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최근 경험한 정서가 없는 경우 대인관계가 높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내에서 여대생의 정서경험정도를 파악하고 중재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조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들의 대인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중재 4주 후에도 대인불안 감소의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하여[23] 대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불안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의 대인관계 증진 뿐 만 아니라 대인불안 감소를 위한 전략개발도 시급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 여대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불안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친구 수가 요인으로 더해져 여대생의 대인관계를 30.1% 설명하였다.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적인 만남을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하며, 사회적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서 많은 결함을 보이게 된다[24] 또한 대인불안은 사회적 기술의 결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Schlenker와 Leary는[25] 대인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관계 지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고 대인불안에 대한 역제가 약한 여성[26]에게서 높은 대인불안은 대인관계 회피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인불안을 감소시켜 주어 발달 과업의 성공적 성취와 함께 건강한 대인관계 적응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친구 수 또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4]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 활동 동안 바람직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대학 동 아리와 같은 다양한 모임활성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여대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불안과 친구 수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여대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 영향요인을 대인불안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E. polan, D. Taylor, "Human Development and Health Promotion". pp. 1-423, Hyunmoonsa, 2014.

[2] S. J. Lee,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Anxiety, Self-efficacy and Body Image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Women's Studies, pp. 161-181, 2004.

[3] H. H. Jung, J. N.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Problem Between Narcissism Propensity Personal of Female University", Journal of Korea counseling vol. 12, no. 5, pp.1599-1611, 2011.

[4] H. S. Kim, W. J. Park, T. H. Ha,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9-237, 2006.

[5] J. H. You, "Psychology and consultation for the Youth", pp.12-339, Yansewon, 2014.

[6] H. K. Chang, J. N. Sohn, "Influence of Appearance Stress,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Depression on Eating Attitude in Women Undergraduates", Journal of Korea Academic Fundam Nurse, vol. 21, no. 3, pp. 235-242, 2014.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4.21.3.235>

[7] M. J. Lee, Y. C. Cho, "Self-perceived Psycho social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828-2838,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828>

[8] H. J. Jang, Y. K. Kwag,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phone over-usage Focusing on Self-control, Mental health and Interrelationship",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149-154,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46>

[9] H. O. Jeon, "Effect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 on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pp. 269-277,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6.269>

[10] K. H. Hwang, Y. S. Yoo, O. H. Cho, "Smart 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0, pp. 365-374,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10.365>

[11] Y. H. Kwon, O. G. Kwag,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t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1, pp. 4441-4448, 2010.

[12] M. Jung,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14-4620,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614>

[13]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95>

- [14] N. J. Kim, "Social Self Discrepancy in Social Anxiety", Journal of Korean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3, pp. 473-483, 2000.
- [15] S. H. Lee, "Relationship of Interaction Anxiousness, Relationship Style & Romantic Attachment in Relationship Addiction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2009.
- [16] S. J. Park, D. E. Bae, "Differences of Society and Stress Coping Style by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305-315,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305>
- [17] J. H. Lee, "The Effects of Attachment, Social Anxiety and Coping Styles on Eating Behaviors for College Fe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 [18] Schlein s, Guerny B,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a University, Philadelphia, 1971.
- [19]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no. 2, pp. 195-203, 1980.
- [20] M. R. Leary,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7, no. 1, pp. 66-75, 1983.
- [21] N. J. Kim,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Korean clinical Psychology, vol. 14, no. 1, pp. 73-81, 1995.
- [22] S. H. Jang., K. D. Cho, " Effects of Depression Scale, Interacti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on Cellular Phone Addiction of Teenager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0, no. 11, pp. 285-293, 2010.
DOI: <https://doi.org/10.5392/JKCA.2010.10.11.285>
- [23] H. W. Kwak, "Effect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14.
- [24] E. H. Song, "The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y, Hope on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6.
- [25] B. R. Schlenker and M. R. Leary,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 92, no. 3, pp. 641, 1982.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2.3.641>
- [26] J. Y. L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1.

정 경 숙(Kyeong-Sook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중앙, 건강증진행위, 유방암

오 은 주(Eun-ju Oh)

[정회원]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다문화, 미혼모, 청소년, 여성 및 임산부 건강증진